

#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 연구 범위와 전망

허 남 옥\*

## <目次>

- |                 |         |
|-----------------|---------|
| I. 서론           | III. 결론 |
| II.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 |         |

## <국문 초록>

지방화시대의 추세는 각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여 다양한 지역학을 활성화시켰다. 지역학은 지방의 역사,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문화전통 등에 관한 연구를 기초 작업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는 등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들의 삶을 생각하는 연구이어야 한다.

지역학과 관련하여 한문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에서 발굴되는 옛 전적들은 그 지역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둘째, 각 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道誌와 시·군 단위의 邑誌이다. 이들 자료의 발굴과 번역, 그리고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한 연구는 지역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마다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회는 정기적인 학술발표나 책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heonw@kangwon.ac.kr

발간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이다. 이 때문에 학회의 활동은 중차대하다. 학회는 지역의 다양한 양상을 기록한 자료의 개발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가르치고 배우는 지역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넷째, 중앙 문단에서 행세를 한 적이 없거나, 벼슬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고향에서 평생을 보낸 문인들의 작품에 시선을 돌려야한다. 또한 그동안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던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역학은 지방의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등을 주제로 삼는다. 특정 지역 및 관련 인물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 지향할 곳이다.

여섯째, 지역학은 지방의 문화와 문화재 등을 주제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 관광 자료의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문학이 다루어야 할 한 분야이다.

【주제어】 지방화, 지역학, 고문서, 향토지, 학회, 자연환경, 문화재

## I. 서론

서울과 다른 지역의 관계는 중앙과 지방, 혹은 중심과 주변으로 표현되듯이 불균형한 성격을 지녀왔다. 이 때문에 서울 중심주의가 심화될수록 지역사회는 서울을 따라하는 의존적 존재가 되었다. 결국 지방은 정치·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기에 이르렀다.

서울 중심주의의 모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극복하려는 사회운동이 대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지역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운동으로 변화하면서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세계적 자본이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세계화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 요청되는 시대적 상황은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지방화시대의 추세는 이전의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틀

을 크게 변화시키고, 각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여 다양한 지역학을 활성화시켰다.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지역학의 활성화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방은 서서히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지역학은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 지역학은 지방의 역사,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문화전통 등에 관한 연구를 기초 작업으로 하면서, 독자적 발전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sup>1)</sup> 또한 지역 주민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고, 지역 사회의 자치적 질서체계와 자율적 사회문화를 복원시키며,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국가구성으로 이어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연구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들의 삶을 생각하는 연구이어야 한다.<sup>2)</sup> 물론 지역 연구가 지역적 특수성이나 개성만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고 전체적인 연관성이나 보편성을 경시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 II.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

지역학과 관련하여 한문학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며,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가?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문학은 우선 지식의 소통과 연구 영역의 개방을 거부하는 배타적 전공주의를 넘어서고 문학의 절대성·순수성을 고집하는 문학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열린 사유<sup>3)</sup>를 가져야 하며, 문화론적 접근<sup>4)</sup>도 시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사유는 중앙 문단에서 행세를 한 적이 없거나, 벼슬에 나가보지도

1)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1』,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p.200.

2) 전경수,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출판부, 1999, p.112.

3) 임형택, 「한국문학연구자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p.7.

4) 임형택, 「한문학유산과 그 문화론적 인식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p.43.

못한 채 고향에서 평생을 보낸 문인들의 작품을 접할 때 유효한 시각이 될 것이다. 작가의 사상이나 작품 자체의 미의식, 혹은 문학사적 의미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울러 어떤 인물이 향촌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였고, 그러한 생활의 일부로서 문학이 어떻게 존재하였는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부분<sup>5)</sup>이라는 주장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리고 문화콘텐츠<sup>6)</sup>나 문화 관광 자료의 구축,<sup>7)</sup> 지역교육의 자료 개발<sup>8)</sup> 등으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은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일반적인 연구 방향을 포함하여, 강원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방면의 연구 활동의 양상을 한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면서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

### 1. 고서 해제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많은 전적들이 발굴되어 연구되고 있다. 지역에서 발굴되는 전적들은 그 지역과 관련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승 고문서를 발굴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영역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편찬한 『春川 南陽洪氏家 古文書·古書』<sup>9)</sup>와 『鄭義鎭先生家 寄贈 古書·古文書』<sup>10)</sup> 등은 고서연구의 이 대표적 사례이다. 『鄭義鎭先生家 寄贈 古書·古文書』의 특성을 통해 고서해제의 의미를 살펴본다.<sup>11)</sup>

5) 이종목,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p.43.

6) 구분기·송성욱, 「한국문학 연구와 문화 콘텐츠」, 『고전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p.53.

7) 이종목, 앞의 논문, p.43.

8) 권혁진, 「해관자집 연구」, 『온지논총』 16집, 온지학회, 2007.

9)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春川 南陽洪氏家 古文書·古書』, 산책, 2007.

10)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鄭義鎭先生家 寄贈 古書·古文書』, 산책, 2008.

11)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위의 책, pp.9-22. 참조.

정의운 집안의 소장 자료는 조선후기에서 일제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들이다. 공간적으로는 강릉을 중심으로 영동지역에 관련된 자료가 다수이다. 또한 자료의 성격도 유가의 전통을 계승한 집안답게 문학, 사학, 철학 등 전통적인 학문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이밖에도 생활과 관련된 학문인 의학, 명리학 등에 관한 서적도 아우르고 있다. 위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려준다.

첫째, 근래에 이르기까지 강릉지역에 한시창작이 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住春社, 瀛洲詩社는 물론이고 20세기 중후반에 이르기까지도 이 지역에는 星山吟社, 鶴社詩會 등의 詩會가 있었으며, 이들 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여 한시를 창작하고 각 회원들이 지은 한시를 모아 출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축하, 애도 등 목적성이 있는 작품의 창작에도 한시를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강릉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지방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몇 가지만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조선시대 강릉의 대표적 土姓인 江陵崔氏 18인의 작품을 모아 엮은 『東原世稿』, 조선 전기 강릉 최씨의 관로진출과 사족으로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臨瀛世稿』, 일제강점기 강릉 선교장의 주인이었던 李根宇의 문집인 『鏡農遺稿』, 조선 중기에 주문진에 香湖亭을 짓고 학문수양과 향촌교화에 힘썼던 崔雲遇의 문집인 『香湖集』, 구한말 강릉지역에 거주하면서 文昌契를 조직하여 시문창작 및 鄉學의 진흥에 힘썼던 朴璟實의 문집인 『晚荷堂遺稿』, 20세기 초반 강릉에 거주하면서 신학문을 거부하고 漢學에 매진하였던 沈一洙의 문집인 『遯湖遺稿』, 權寧機의 문집인 『少霞隨筆』, 沈相龍의 문집인 『菘田集』, 강릉유림회장을 역임하였던 鄭胄教의 문집인 『晚惺隨錄』, 『晚惺雜錄』 등은 조선전기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강릉지역 인사의 학문과 문학적 성과를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특히 일제로부터의 해방, 6·25 동란, 자유당 부정선거 등 근대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느낀 지식인의 울분과 감정을 표출한 작품들은 한 편의 서사시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밖에도 金時習을 포함하여 강릉김씨 尙書公派의 先祖 9位를 배향할

목적으로 강릉시 흥제동에 건립된 彰德祠의 祠誌, 강릉 출신 인사 12인을 배향하는 鄉賢祠의 祠誌,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東州崔氏의 후손들이 가문의 선조인 최영장군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강릉에 세운 사당인 德峯祠의 祠誌, 강릉향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한 實記, 강릉 향교와 서원에 다녔던 인물의 명부 등은 근세 鄉校와 祠院의 운영과 儀式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로 이를 통하여 전근대 향교와 사원의 제례절차 등을 복원하는데 유용한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영동지역 지방사 연구에 참고가 될 것이다.

셋째, 과거시험과 관련된 도서 외에 양반가의 다양한 도서목록을 제시한다. 『瀛奎律髓』, 『濂洛風雅』 등 조선시대 선비들이 많이 본 중국의 시선집 뿐만 아니라 陶淵明, 杜甫, 李白, 蘇軾 등 중국 唐宋代의 저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발췌하여 필사한 책들이 여러 편이며, 이밖에 시를 주고받은 문서와 창작시들을 엮어 만든 책들도 여러 편 보인다. 또한 『奎章全韻』 등 한시의 韻書도 몇 종이 있는데, 운서에는 공통적으로 여러 곳에 방점이 찍혀 있는 등 소장자가 매우 탐독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과거입격자의 科詩를 발췌한 필사본과 科詩의 형식에 맞게 직접 쓴 책들이 많아, 이 가문에서 과거준비에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科詩는 일반적인 漢詩와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기는 하지만 韻과 對句를 맞춰야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 조선조 科文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三國誌』, 『紅樓夢』, 『西廂記』 등 중국의 소설집과 『하진양문록』, 『김진옥전』 등 우리나라 소설 작품들도 남아 있고, 특히 조선후기 몽유록계 소설인 『金山寺夢遊錄』의 이본으로 추정되는 작품도 있어 향후 검토를 요한다.

넷째,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강릉지역의 다양한 생활상을 보여준다. 기증받은 고문서는 과거급제자가 많지 않아 教旨 등 국왕이 내린 문서는 없고,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간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所志, 明文, 單子, 牌旨, 帳簿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구

한말, 일제강점기 강릉지역의 物價, 地價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은 강릉 정의윤가에서 기증한 고문서의 특징적인 면모이다. 고문서 자료는 어느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실상을 자세히 보여주는 귀중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할 분야이다.

## 2. 도지, 군지 번역 및 연구

각 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道誌와 시·군 단위의 邑誌이다. 지역학에서 도지가 차지하는 위치를 『국역 강원도지』<sup>12)</sup>를 통해 살펴본다.

『강원도지』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에서는 이를 총괄 관장하는 도단위의 기구를 만들고, 이를 다시 각 시·군 중심의 하부기구를 만들었으며, 각 항목을 시·군별로 편집하였다. 이 편집의 상황을 도지 발문에서 엿볼 수 있다.

도마다 지(誌)가 있고 군마다 지가 있는데 유독 강원도만이 없으니 이것은 우리 도의 수치이다. 이에 도에서 글을 띄워 창간할 것을 의논하니 다 함께 동의하여 군지를 모아 합치고 (중략) 온 도의 유학자들의 앞선한 힘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처럼 거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단 말인가.

이 발문을 추려 보면 강원도에는 도지가 없었고, 강원도지 편찬을 도가 주관하는 작업이었으며, 도내의 모든 군지를 취합해 만든 책이라는 것이다. 이 도지를 만들기 위하여 도내 각 시·군에서 글 잘하는 유학자들을 203명이나 동원하였다. 도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卷之一：建置沿革，位置及地勢，官職，姓氏，風俗，形勝

12) 을곡학회, 『국역 강원도지』, 산책, 2005.

卷之二：山川

卷之三：古蹟, 土産, 邑面町里, 戶口, 土地, 稅額, 道路, 橋梁, 堤堰, 港灣,  
公廨, 官公署

卷之四：校院, 壇祠, 神社, 樓亭

卷之五：寺刹, 宗教, 教育, 世居氏族, 公共團體, 通信, 金融, 市場

卷之六：先生案

卷之七：文科, 武科, 司馬, 逸薦

卷之八：仕宦, 蔭仕, 附筮仕, 壽職, 儒賢, 文學, 筆苑

卷之九：忠義, 孝行, 烈行, 賢媛, 閨行, 名流, 慈善, 篤志

卷之十：寓居, 謫居, 高僧, 題詠, 叢談, 附記事, 陵墓, 碑板, 冊板

강원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신고 있다. 그야말로 지역학의 훌륭한 참고자료인 셈이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간혹 객관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은 않은 것 같다. 도지는 200명이 넘는 사람의 관여로 이루어진 책이기에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 그 예가 文學의 항목이다. 여기서 문학이라 한 것은 학문과 같은 말로 학문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고장에서 알려진 사람을 기록한 것이다. 춘천 22명, 인제 3명, 양구 28명, 강릉 49명, 삼척 57명, 울진 340명, 원주 15명으로 되어있다. 울진의 340명은 기준이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각 시·군에서 선정한 일이기에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선택하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 같다. 향토지 편찬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인물의 선정이다. 증빙이 확실한 인물의 선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를테면 도지 7권에 ‘문과’라는 항이 있는데, 이것은 榜目이나 증빙 전적이 뚜렷하여 집필자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서의 문학과 같은 선정은 기준도 모호하고 준거가 없어 집필자의 주관에 따라 가감이 가능한 항목이다. 이런 항목은 연구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지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도지 뿐만 아니라 군읍지의 발굴과 번역, 그리고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한 연구는 지역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 3. 학회 활동

강원도에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회가 세 개 있다. 栗谷學會와 毅庵學會, 耘谷學會가 그것이다. 모두 강원도를 근거지로 하고 있지만, 학회활동은 전국적이며 활발하다.

의암학회를 예를 들어 연구 활동을 정리해보면서 학회활동의 나갈 방향을 탐색해본다. 학회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책 발간이다. 의암학회는 최근에 『의암 유인석 백절불굴의 항일투쟁』<sup>13)</sup>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의암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항일구국투쟁사를 쉬운 문장으로 요약한 소책자이다. 이 책자는 중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이 의암선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펴냈다. 이 책에서는 의암 선생의 생애와 학문, 사상 등을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현장을 답사해 그 역사적 사실들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의암 유인석의 가계와 성장을 비롯해, 일제의 침략과 의암 유인석의 항일투쟁, 을미호좌의병과 의암 유인석, 중국망명과 의병근거지 건설, 러시아 망명과 항일독립투쟁 등으로 엮었다.

또 유인석의 사상이 배어 있는 『국역의암집』<sup>14)</sup> 제5권도 함께 펴냈다. 이러한 국역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한문학자들이 자료 발굴과 번역에 힘써야할 부분이다.

중등교사들이 주축을 이룬 학회로 강원한문교육연구회와 치악한문교육연구회가 있다. 이 중 치악한문교육연구회의 활동은 참고할 만 하다. 연구회에서는 강원 의 일 중고등학교 교재로 『운곡 원천석의 삶과 얼을 찾아서』<sup>15)</sup>를 엮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의 다양한 양상을 기록한 자료의 개발을 한문학이 담당해야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자료들

13) 의암학회, 『의암 유인석 백절불굴의 항일투쟁』, 산책, 2009.

14) 의암학회, 『국역 의암집』, 산책, 2009.

15) 치악한문교육연구회, 『운곡 원천석의 삶과 얼을 찾아서』, 2007.

은 해당 지역을 가르치고 배우는 ‘지역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sup>16)</sup>

지역교육이란 지역을 바로 알기 위해, 지역·지역인의 삶을 근거로 내용을 선정하며, 지역 공간을 터전으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sup>17)</sup> 이와 같은 지역교육은 지역화라는 교육 목표를 성취함과 동시에, 그 사회의 정체성 확립과 그 지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자기 고장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역민의 삶을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당면한 지역 단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뿐 아니라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sup>18)</sup>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보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중심과 주변의 차별적 인식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지역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역교육은 지방화를 내실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한문학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치악한문교육연구회는 시민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도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 4. 인물 중심 연구

강원도 출신의 학자와 문인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학회를 통하여 조명을 받아 왔다. 그러나 관심을 끈 학자와 문인들은 대부분 전국

16)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문화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은 참고할 만 하다. 김혜민, 「진해시 지역문화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원운선, 「원주시 지역문화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기영, 「남양주시 지역문화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7)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한국교육의 지역화 연구 I』, 교육과학사, 2005, p.24.

18) 조상제,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 교육」, 『역사교육』 68, 역사교육연구회, 1998, p.133.

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거나 남자인 경우이다. 이제는 중앙 문단에서 행세를 한 적이 없거나, 벼슬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고향에서 평생을 보낸 문인들의 작품에 시선을 돌려야 할 시기이다. 작가의 사상이나 작품 자체의 미의식, 혹은 문학사적 의미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 인물이 향촌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였고, 그러한 생활의 일부로서 문학이 어떻게 존재하였는가를 살피는 것<sup>19)</sup>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후기 문인인 辛汎(1823-1879)이 지은 시문집 『蓬西遺稿』를 번역한 『국역 蓬西遺稿』<sup>20)</sup>를 주목해야 한다. 번역을 통하여 그의 학문을 연구하는 기초가 놓여졌다. 신범은 비록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학문적, 문학적 깊이가 깊고 웅대해 지방 유학의 거봉 중 하나로 알려졌다. 그는 화서에게 배운 뒤 고향인 평창에 돌아와 봉호재, 조사정이란 교육기관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각지를 돌며 당대의 학자들과 교분을 쌓고, 학문적 의견을 두루 나누기를 즐겨 했으며, 그 고장의 풍물을 시로 남겼다. 따라서 그의 시문집 번역은 평창이란 지역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명도가 별로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던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여인의 노래』<sup>21)</sup>는 여성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하였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申師任堂의 한시는 강원도 여성 한시문의 선편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許蘭雪軒은 그 동안 한문학 연구사에서 많은 관심과 조명을 받아온 여성작가이다. 특히 그의 遊仙詞는 환상적인 분위기와 상상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한시는 중국에까지 알려져 문집으로 판각되기까지 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87수나 되는 허난설헌의 遊仙詞는 仙人이 하늘로 올라가 주유하는 내용이 주류

19) 이종묵, 앞의 논문, p.43.

20) 평창군, 『국역 蓬西遺稿』, 원영, 2007.

21) 허남옥, 『조선여인의 노래』, 동인서원, 1998.

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좁은 규방에서의 탁월한 상상력이 꿈으로 승화되어 선계를 순례한 것이다. 이처럼 허난설헌은 불만족한 현실로부터 탈출하여 신선의 세계를 꿈꾸는 과정에서 遊仙詞를 짓게 된 것이다. 허난설헌이 지역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朴竹西는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던 인물이다. 19세기 한 남자의 소설로서 일생을 살아간 강원도 原州 출신의 朴竹西는 동시대 다른 여인들에 비해 상당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지만, 기실 그의 한시는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언급될 뿐 본격적인 조명을 받은 일은 없다. 그것은 아마 許蘭雪軒이나 李玉峯 등과는 달리 竹西의 한시가 특별한 문학적 기교라든가 문학사의 발전적 측면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오히려 어느 여성 시인들보다 훨씬 조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섬세한 감각으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시화한 竹西의 창작 활동은 19세기 여성들의 시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한다. 이 점에 주목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다.<sup>22)</sup>

李玉峯은 강원도 출신은 아니지만, 남편을 따라 강원도 영월지역을 여행하면서 시문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를 거주지로 하여 시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寧越途中」에서는 단종의 슬픈 사실을 감회 깊게 노래하였다. 李玉峯의 대부분의 시들은 여인의 정한이나 別離의 슬픔을 읊은 것들이 많은데, 이 역시 정실부인이 아닌 소설로서의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강원도 여성의 시문들은 당대 사회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여실히 반영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들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것이다.

22) 원주연, 「박죽서 한시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5. 자연 경관, 혹은 그곳과 관련된 인물 연구

지역학은 지방의 역사,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문화전통 등을 주제로 삼는다. 화천 화음동 계곡에 가면 300여 년 전 김수증이 새긴 인문석이 있다. 김수증은 인문석 주변에 여러 채의 건물을 짓고 수양공간인 정사를 경영하면서 화음동 정사와 구곡이라는 독특한 은둔문화를 탄생시켰다. 조선시대 김수증을 재조명하는 『권력과 은둔』<sup>23)</sup>은 값지다. 이 책은 김수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은둔 문화의 역사와 그의 철학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화음동의 인문석과 곡운집의 기록을 토대로 김수증과 그의 시대를 추억하고, 나아가 그와 인간적인 결연을 한 다른 문인들의 기억을 통해 곡운구곡과 유람문화의 실체를 알아보고 있다. 권력의 무상함으로 인해 지식인들이 은둔했던 조선사회의 시대적 배경과 김수증의 기록을 좇아 살펴보는 이 책은 문화 권력이 곧 정치권력이었던 시대적 상황과 은일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농연그룹으로 지칭되는 이들의 산수관과 진경시학이 김수증의 기유문예에 힘입고 있음을 밝혔다. 구곡도의 발생과 한국적 전개를 개관하고 김수증이 해서 지방에서 이름을 날리던 화인 조세걸을 초빙해 곡운구곡도를 그리게 한 과정, 도판자료와 함께 남아 있는 곡운구곡도의 조형미학적 의미도 탐색하고 있다.

특정지역과 그것과 관련 있는 인물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 지향할 곳을 제시해준다.

## 6. 문화재 중심 연구

춘천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청평사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아낸

23) 유준영 외, 『권력과 은둔』, 북코리아, 2010.

『청평사』<sup>24)</sup>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5년여에 걸쳐 고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 후 집필, 천년 고찰의 흥망성쇠와 아름다운 자연경관, 역사 속 문인들의 시, 사진자료 등으로 청평사의 면면을 생생히 들려준다. 특히 2006년 한국전통조경학회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청평사 선원의 고문헌적 연구(1)」도 포함, 청평사의 기원 등 전문적인 지식을 담아냈다. 또 고증을 통해 청평사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園林의 발달문화를 일반인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청평사의 역사문화와 형성과정, 청평사의 지형경관 및 식생, 청평사의 세부공간, 청평사의 팔경문화 등으로 구성했으며 이 중 청평사의 세부공간은 고증에서 밝힌 현장 유적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평사 일대의 모든 지형지물의 옛 이름을 찾아 명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었다.

한편 청평사의 역사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학술서가 출간됐다. 『청평사와 한국불교』<sup>25)</sup>는 강원지역의 불교전파와 청평사 창건 및 변천과정에서 청평사의 법맥과 연관성을 찾고 있다.

저자는 책의 머리에서 고려 초 창건 이후 고려 말 나옹왕사,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심사찰로 성장, 많은 승려들이 수행한 청평사 연구는 한국불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연구사 검토를 시작으로 강원지역의 불교전파와 사찰경영, 청평사의 창건과 변천, 문헌자료로 본 가람배치, 청평사 출가승·거사, 법맥의 계통과 특징, 복원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등으로 나눠 청평사의 역사를 해부하고 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발굴조사에서 얻어진 고고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람배치와 관련 발굴조사를 부분발굴보사로 진행, 전모를 구명하는데 미흡했다고 밝힌 저자는 문헌자료를 조사해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밝히고 있다.

24) 윤영환, 『청평사』, 대원사, 2009.

25) 홍성익, 『청평사와 한국불교』, 경인문화사, 2009.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 관광 자료의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한문학이 다루어야 할 한 분야이다.

### Ⅲ.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모색해본다. 지방화시대의 추세는 이전의 중앙집권적 틀을 변화시키고, 각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여 다양한 지역학을 활성화시켰다.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지역학의 활성화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방은 서서히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지역학은 지방의 역사,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문화전통 등에 관한 연구를 기초 작업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고, 지역 사회의 자치적 질서체계와 자율적 사회문화를 복원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연구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그들의 삶을 생각하는 연구이어야 한다.

지역학과 관련하여 한문학은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며 지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면에서 어떻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에서 발굴되는 옛 전적들은 그 지역과 관련된 지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문서 자료는 어느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실상을 자세히 보여주는 귀중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

둘째, 각 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道誌와 시·군 단위의 邑誌이다. 향토자료 중에는 기준도 모호하고 준거가 없어 집필자의 주관에 따라 가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지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도지뿐만 아니라 군읍지의 발굴과 번역, 그리고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한 연구는 지역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마다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회가 있다. 학회는 정기적인 학술발표나 책 발간 등을 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학회의 활동은 중차대하다. 학회는 지역의 다양한 양상을 기록한 자료의 개발하여 해당 지역을 가르치고 배우는 지역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넷째,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지역 출신의 학자와 문인들뿐만 아니라 중앙 문단에서 행세를 한 적이 없거나, 벼슬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고향에서 평생을 보낸 문인들의 작품에 시선을 돌려야한다. 또한 그동안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던 여성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역학은 지방의 자연환경, 지리적 여건 등을 주제로 삼는다. 특정지역과 그것과 관련 있는 인물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이 지향할 곳을 제시해준다.

여섯째, 지역학은 지방의 문화전통 등을 주제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 관광 자료의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한문학이 다루어야 할 한 분야이다.

<參考 文獻>

-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春川 南陽洪氏家 古文書·古書』, 산책, 2007.
-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鄭義鎭先生家 寄贈 古書·古文書』, 산책, 2008.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한국교육의 지역화 연구 I』, 교육과학사, 2005.
- 구본기·송성욱, 「한국문학 연구와 문화 콘텐츠」, 『고전문학연구』 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 권혁진, 「해관자집 연구」, 『은지논총』 16집, 은지학회, 2007.
- 김혜민, 「진해시 지역문화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원운선, 「원주시 지역문화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원주연, 「박죽서 한시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유준영 외, 『권력과 은둔』, 북코리아, 2010.
- 윤영환, 『청평사』, 대원사, 2009.
- 울곡학회, 『국역 강원도지』, 산책, 2005.
- 의암학회, 『국역 의암집』, 산책, 2009.
- , 『의암 유인석 백절불굴의 항일투쟁』, 산책, 2009.
- 이기영, 「남양주시 지역문화를 활용한 수업자료 개발」,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운갑,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동방한문학회, 2003.
- 이종묵,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한민족어문학』 제45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 임형택, 「한국문학연구자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 , 「한문학유산과 그 문화론적 인식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37집, 한국한문학회, 2006.

- 전경수,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출판부, 1999.
-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1』,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 조상제,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 교육」, 『역사교육』 68, 역사교육연구회, 1998.
- 치악한문교육연구회, 『운곡 원천석의 삶과 얼을 찾아서』, 2007.
- 평창군, 『국역 蓬西遺稿』, 원영, 2007.
- 허남욱, 『조선여인의 노래』, 동인서원, 1998.
- 홍성익, 『청평사와 한국불교』, 경인문화사, 2009.

## Abstract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as Regional Study*  
*: the Research Scope and Perspectives / Heo Nam Wook\**

The trend of localization has invigorated various regional studies, encouraging to set up regional identity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Regional study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a life of resident to find out their identity including history, natural environment, geographical conditions, culture, and traditions in each region.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involved with regional study has played an important part. The ways of it, as regional study, can be organized as follows.

First, it should have abiding interests in ancient documents, because they contain lots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region.

Second, Do-Ji(道誌) and Up-Ji(邑誌) by civic unit, they are rudimentary materials to examine regional characteristics. To research a region, it's essential that to discover, translate, and study of these materials.

Third, academic society researching local character-driven, can be a main agent to hold regular conference and publish. For this reason, academic society's activity is a crucial issue. They also need to work for an education to learn the region, through a development for regional materials containing multiple aspects.

Forth, we should turn to the writings which are concentrated by writers staying their own hometown for whole life without any experience in the literary circles in the metropolis, or take up public office. And also, we should bring to our attention with female writers, and take never-ending research.

---

\* Professor of Kang-won National Univ. / heonw@kangwon.ac.kr

Fifth, regional study has covered the natural environment and geographical conditions. So, we should seek to perform comprehensive research on particular region and character, as a study of regional study.

Sixth, it also deals with subjects of regional culture and cultural assets. It means that it has some significance as a basic research—the development of materials on the culture and tourism. Therefore, these subjects should be seriously treated in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Key words】 localization, regional study, ancient documents,  
home geography, academic society, natural environment,  
cultural assets

투고일 : 5월 7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7일